

(주)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세계 최초 청국장균을 이용한 발효 대두박 'Soytide' 제품 출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청국장균(바실러스)을 이용하여 천연 발효공법을 통해 소화 이용율과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기능성 대두박 'Soytide'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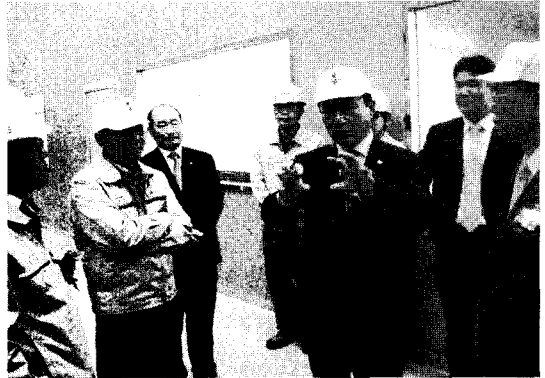
CJ제일제당(김진수 대표)은 5월28일 인천 대두 사업장에서 3년간의 연구개발 결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청국장균으로 천연 발효공법을 통해 소화 이용율과 면역력을 증강시킬수 있는 사료용 기능성 대두박 'Soytide' 공장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로인해 CJ유지사업의 Value Chain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Soytide' 제품은 대두박을 청국장균으로 발효하여 소화가 어려운 어린 가축용 기능성 단백질 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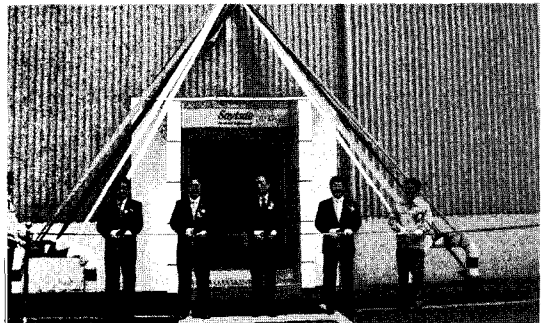
제품의 특징은 청국장균이 보유한 강한 단백질 분해효소를 이용, 소화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단백질을 작은 크기의 단백질(펩타이드)로 분해하였으며 어린가축의 설사를 유발시키는 항영양인자 감소 및 제품내 10억마리의 청국장균을 함유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제품이다.

어린자돈을 대상으로 회장소화율 테스트 결과시 경쟁사제품 대비 3~5% 이상 소화율이 높았으며, 10억마리 이상의 청국장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Probiotics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어분가격 상승에 따른 어분대체 사양테스트를 강릉대 및 일본에서 각각 진행하여 동물성 단백질 대체원으로 집중 검토 중이다.

본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해 CJ그룹 각 부문별 R&D 기술력과 핵심역량이 집약되었다. CJ식품연



공장건축 가운데 김진수 대표



발효대두박 공장 준공식 테이프 커팅

구소의 발효기술, 소재사업의 원료사업 경험, 사료 사업의 동물영양 및 배합비기술, 식품사업의 고체발효 엔지니어링 기술력 등이 밑바탕되었다. 현재 발효대두박을 사용한 CJ퍼펙트마이스터를 비롯한 일부 사료제품은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축산업계 환경은 Global 곡물가격의 변폭 확대, 환율상승, 구제역 및 지속적인 질병 발생으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 때문에 축산물 안전을 위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항생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EU는 2006년부터 사료내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켰고, 국내 또한 2012년부터 사료공장내 항생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

며 동물성 원료 사용에 대해 많은 제한 조치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사료 원료 사업의 리더 기업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함과 R&D, 생산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하여 원가·품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지속적인 현장테스트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제품 기능을 밝힐 것이며,

일본 및 동남아 수출 및 중국사업진출을 검토하여 Global시장에 도전하여 발효대두박 사업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이며 고기능의 사료원료개발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Solution을 제공하는 원료사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농협' 낙농헬퍼사업 적극 지원

낙농헬퍼사업은 1958년 독일에서 시작되어 초기에는 농기계의 교환사용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농가경영 전반에 걸친 인력과 기술의 보충이 요구되어 농가의 노동력 보완, 착유작업 보조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농헬퍼사업의 모습과 비슷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도 1965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고, 일본낙농헬퍼전국협회(<http://d-helper.lin.gr.jp>)를 설립하여 낙농헬퍼사업을 지금까지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처음으로 낙농헬퍼사업을 실시하였고, '94년 7개, '01년 14개 그리고 '09년도에는 총 27개의 지역축협 및 낙농조합이 낙농헬퍼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낙농가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본 사업을 이용하여 낙농업 수행에 따른 연중무휴의 근무여건상 어려움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낙농헬퍼사업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원해왔다.

그 결과 사업 이용 농가 수(연간이용누계)는 지

난 '01년 7,810농가에서 '08년에는 15,483농가로 약 198%증가하였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낙농헬퍼사업을 이용하는 낙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낙농가 지원에 지출한 조합 부담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하여 조합의 운영비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조합이 낙농가 지원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년에는 농협중앙회 자체 예산 117백만원을 투입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낙농헬퍼사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 이외에도 낙농 헬퍼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헬퍼요원에 대한 지원이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전문 헬퍼요원을 양성하고, 동시에 헬퍼요원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근무일수를 보장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헬퍼요원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주)카길에그리퓨리나

퓨리나사료, 차별화된 여름철 서비스 시작

퓨리나사료(대표이사:이보균)는 여름철 섭취량이 줄어들며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전 제품 하절기 특수 배합을 적용하고 특수사료를 공급하는 퓨리나사료만의 차별화된 하절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올해 하절기 사료 특수 배합은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내 생리 활성을 활발하게 유지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올해 같이 봄이 없이 갑작스럽게 여름으로 접어들며 온도가 급격히 상승되면 가축의 섭취량과 면역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하절기 특수배합은 농장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양돈, 축우, 양계 전 사료에 퓨리나의 영양 기술을 적용하여 증체가 잘 되고 사료효율이 개선 되도록 비타민 및 미네랄을 보강하고, 기호성이 좋은 원료를 선별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수 배



합은 무더위가 가시는 9월까지 지속 될 예정이다.

엄선된 원료와 고영양으로 높은 기호성과 우수한 영양으로 성장 정체 해결에 탁월한 하절기 특수 사료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으로는 스위트팩, 양돈 뉴트라팩사료, 퍼팩트 젓먹지, 육성돈, 비육돈 사료이다. 퓨리나사료는 하절기 특수 배합과 특수사료로 여름철 무더위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농장의 차단 방역도 앞장서서 하여, 차별화된 여름 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주)대한제당

〈오아시스-카프탑P〉 신제품 출시예정

기존 송아지 사료의 명품 QRD를 더욱더 보강하여 오아시스-카프탑P 신제품을 8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QRD의 차별화된 특징인 반추위의 용모 및 균총을 발달시켜 조기이유를 시키는데 중점을 맞춘 반면 이번 신제품인 오아시스-카프탑P은 뷰티산을 첨가하여 기존 QRD 보다 2배 정도 반추위의 용모를 발달시킴과 동시에 FOS(Fructo-Oligosaccharide) 첨가로 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설사 예방과 소화 흡수를 더욱더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허브, 계피 등 식물추출물을 첨가하여 송아지 설사 및 항병력을 강화시켜 설사로 인한 송아지 폐사를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오아시스-카프탑P은 송아지 성장에서 가장중요한 반추위발달 및 장의 건강성을 극대화시켜 조기이유 및 설사예방으로 탁월한 성장을 보장할수 있는 퍼팩트 한 송아지 사료로 평가 할 수 있다.



(주)드라발

효율적인 서비스- 낙농가의 성공 경영을 지원한다.

전문적인 서비스는 낙농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드라발 본사 서비스 및 부품 담당 부사장인 팀 니콜라이에 따르면 “고품질의 원유와 높은 산유량은 착유 장비의 최적 성능에서 시작된다. 전문적인 예방점검 서비스가 낙농가의 경영과 이익 달성에 핵심요소를 확신한다.” 고 전했다.

미국 캔자스 주립대 식량과학산업부 프레드 페어차일드 교수는 예방점검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방점검 서비스에 소요되는 1달러의 비용은 적어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5달러의 비용을 절감해 준다”고 전했다.

우군 건강상태 개선과 착유설비의 최적 성능 유지 그리고 착유우의 스트레스 감소 등은 전문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실시되는 시스템 서비스 계약을 통해서 낙농가들이 성취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니콜라이 씨는 설명했다.

니콜라이 씨에 따르면 “많은 낙농가들이 확실하게 증가된 생산성과 탁월하게 개선된 착유 우군의 건강을 직접 확인하며 3차 서비스 계약 중에 있어 낙농가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이러한 점이 2008년 출시된 새로운 서비스 접근방식, 인서비스(InService™)가 가지는 의미이다.”라고 전했다.

호주 서부지역 보안업 지역의 드라발 목장인 로렐던 목장을 운영중인 드와인 닐 씨는 3회 연속 인서비스(InService™) 계약중에 있으며 20개의 착유 유닛과 알프로(ALPRO™) 우군 관리 시스템을 통해 210두를 착유하고 있다.

드와인 씨에 따르면 “인서비스(InService™)는



목장경영의 많은 걱정거리들을 털어 주었다. 세제나 소모품 등의 주문 시점을 일일이 기억해 둘 필요 없이 때가 되면 드라발 서비스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한다. 때에 맞춰 착유 설비 서비스 및 라이너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인서비스는(InService™)는 목장주로 하여금 예방점검 시기에 맞춰 소요비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비용발생이 줄어 자금 흐름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 결과 착유설비가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으며 덧붙여 “다음 인서비스(InService™) 계약 갱신시점이 되면 확실히 재계약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드라발 인서비스(InService™)는 전세계 어느 목장 시스템에서나 개별 목장주의 요구 사항에 최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디자인 되어있다.

효율적인 서비스는 지속 가능한 낙농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니콜라이 씨에 따르면 “목장 경영 규모와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계획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목장발전을 유지시켜 주는 전문적인 방법이다.